

대학생의 일상생활 및 선거 시기 정보원 이용 행태 비교 분석*

Seeking and Using Information Sources by College Students: Comparisons of Information Seeking in Everyday Life and during Elections

이 정 미(Jeong-Mee Lee)**

목 차

- | | |
|------------------|-----------------------------------|
| 1. 서론 | 4. 대학생 정보원 이용 실태 |
| 2. 이론적 배경 |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 2.1 정보원의 이용과 평가 | 4.2 대학생의 정보원 이용실태 |
| 2.2 정보요구, 정보추구행태 | 4.3 일상생활의 정보원 이용과 특정시기의 정보원 이용 |
| 3. 연구내용과 방법 | 5. 결론 및 제언 |
| 3.1 연구 대상 및 방법 | |
| 3.2 분석방법 | |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일상생활의 정보요구에 맞는 정보원을 탐색하고 이용하는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서울지역 12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 각 대학 30명 씩 총 360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에게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정보원은 무엇이며 해당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으며 일상생활의 정보원 이용과 특정 시기의 정보원 이용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기 위해 지방 선거와 같이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는 정보원과 그 이유를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정보원 평가를 위해 다양한 웹 정보원 평가 기준들을 참조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17.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ollege students seek and use information sources in their everyday lives. A total of 360 students from twelve colleges located in Seoul were randomly selected and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rvey asked them what kind of information sources they use in their everyday life and what differences it has when they seek the information sources for their decision making time. Various criteria for evaluating information sources were reviewed to adopt in this study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7.0.

키워드: 정보추구행태, 정보원 이용, 이용자 연구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formation sources and use, user studies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mlee@swu.ac.kr)

논문접수일자: 2010년 7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7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8월 1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117-135, 2010. [DOI:10.4275/KSLIS.2010.44.3.117]

1. 서론

일반적으로 정보학 연구는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생성하고, 탐색·검색, 이용하느냐에 대해 집중해 왔으며 웹의 급속한 확산 이후 기존 연구에서 인간과 웹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Spink 2000)를 자연스럽게 포함하게 되었다. 웹의 대중화, 보편화와 함께 다양한 정보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이해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범위와 대상을 바탕으로 한 정보요구나 정보 추구 행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루어진다면 이용자의 정보 추구 행태에 적절하게 녹아든 도서관 장서 구성이나 정보 서비스 또는 전체 도서관 업무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발전한 정보 기술은 기술자에게 뿐만 아니라 정보학계에도 엄청난 변화의 흐름을 가져왔다. 발달된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비쿼터스 시대가 실현가능해지면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보자원을 탐색,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방대한 웹기반 전자 정보원의 확산과 이를 바탕으로 브라우저에서부터 검색, 이용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현실은 이용자에게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정보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Hemminger et al. 2007). 이용자가

접촉 가능한 정보원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종류나 형태에 있어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필수적임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용자가 주어진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는 양상이나 이유를 시기별 정보추구양상에 기반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이용자 집단 중 Y세대라 일컫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정보환경과 정보원 이용행태를 지방선거라는 특정한 시기의 정보추구와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정보 추구에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을 대학생 집단으로 한정된 것은 그들이 소위 말하는 Y세대라 불리는 차세대 주류 이용자 그룹이기 때문이다. Y세대¹⁾란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2세대를 일컫는 말로, 1978년부터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다. 이 세대는 정보기술 발달의 정점에서 태어나 TV나 컴퓨터, 비디오 등의 전자 제품에 익숙할 뿐 아니라 글로벌과 정보기술에 강한 세대라 인식된다. 이 세대의 이용자는 책보다는 컴퓨터, TV 등의 모니터에서 전달되는, 전자적 정보원에 거부감이 없으며 정보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혀온 세대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보기술과 정보서비스의 발전은 소위 이 이용자 그룹, “Y세대”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Y세대의 정보원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Y세대 이후의 세대, 즉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화된 정보 자원과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살아온 소위 Z세

1) 다음 용어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7XXXX2565>>. 프루덴셜 보험회사가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봉사활동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미국에서 2000년, 즉 Y2000에 주역이 될 세대를 부르면서 생겨났다.

대, N세대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어 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Y세대라 일컬어지는 현재 대학생들의 정보원 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는 머지 않아 주류 이용자로 떠오를 잠재 사용자들의 정보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연구라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원의 이용과 평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원의 급증은 정보 서비스를 대중화, 일반화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정보환경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탐색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통적 정보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급증한 웹정보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인쇄 정보원은 정보원의 주제내용, 저자의 권위성 등이 고루 합쳐져 복잡한 출판 과정을 거친다는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정보원 자체의 질적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게 인식되지 않았다. 반면 웹정보원은 간단한 웹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쉽고 빠르게, 어떤 질적인 통제없이 웹상으로 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판자에게는 편리하나 이용자 측면에서는 해당 정보원의 권위와 신용도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용자의 정보원 선택 요소 검토(Barry 1994)에서부터 데이터의 품질과 요소의 평가·관리(최인숙

2004; 정혜정 2007), 유형에 따른 온라인 정보원의 신뢰성 평가요인(김영기 2010)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한 측면의 이용자·정보원·정보추구행태 연구를 발전시켜왔다. 또한 각각의 정보원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을 고찰하고 보다 적절한 평가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정보원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주로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에서 시작해 데이터의 품질 평가, 평가요소, 이용자에 기반한 신뢰지수 등으로 그 연구의 맥이 이어져 나갔다.

정보원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데이터 품질 평가, 웹 자원의 질적 평가, 웹사이트 평가, 웹정보서비스평가와 같은 이름으로 다양한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들은 정보원의 이용과 평가를 고찰하고 보다 양질의 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원 이용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선행 연구들이다.

데이터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199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초기의 연구들로는 SCOUG(The Southern California Online User's Group)가 이용자에 기반한 데이터 품질 평가를 위해 제시한 11가지 측정 기준(일관성, 범위, 시기적절성, 비용가치, 접근성, 시스템의 형태, 사용 용이성, 통합성, 제공형태, 이용자 호응도)(Basch 1990) 또는 김선형과 유사라(1997)가 제시한 데이터베이스 품질 평가기준(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현행성) 등이 있다. 좀 더 최근의 연구로는 정보품질에 관해 4가지 영역(정확

성, 완전성, 현행성, 형태), 시스템 영역에 5가지 영역(접근성, 신뢰성, 응답시간, 유연성, 통합성)으로 세분화해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Nelson 2005)와 좀 더 세밀하게 15개 영역(신용성, 정확성, 객관성, 명성, 부가가치여부, 연관성, 최신성, 완전성, 데이터양의 적절성, 관독성, 이해용이성, 일관성, 간결성, 접근성, 보완)으로 데이터 품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Sadiq, Zhou와 Orłowska(2007)의 연구들이 있다. Berti-Equille(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데이터 품질 영역은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일관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 연구로는 내용, 디자인, 접근용이성을 웹사이트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연구(황혜경 1998)에서부터 네비게이션, 기능성, 이용자 통제, 언어와 콘텐츠 등 사용성 평가에 기반한 기준을 제시한 연구(이응봉 외 2002), 권위성, 정확성, 최신성, 객관성, 수록범위, 목적 및 이용대상, 디자인 및 외양, 구조, 탐색성, 네비게이션, 브라우징, 링크사항, 연결성 또는 접근성, 이용자 지원성을 제시해 이들을 정보콘텐츠, 기능성,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커다란 범주로 구분해 제시한 김석영(2002)의 연구등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기능성, 유용성, 효율성, 신빙성이라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한 연구(Bauer and Sharl 2000)와 그래픽 및 디자인, 브라우징, 최신성, 콘텐츠, 권위성, 특이성, 이용대상자, 실행성, 연결성을 제시한 Smith(2002)의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석영(2002)이 제시한 14개 과학기술분야 웹 정보원 평가기준 중 정보콘텐츠 범주에 있는 권위성, 정확성, 최신성, 탐색성(검색성), 접근성을 도입하고 친근성이라는 이용자 친화적 항목을 덧붙여 총 6가지 항목으로

이용자가 해당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정보요구, 정보추구행태

정보원의 이용과 정보추구행태를 개념화하는 것이 이용자 이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개념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는 이용자가 어떻게 해당 정보원을 이용하고 왜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간단한 몇 개의 그림이나 도표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정보원, 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는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전자정보원의 출현 이후 각종 전자 자원의 이용과 이를 중심으로 한 정보요구, 정보추구행태를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 미디어 접촉 동기와 정보내용의 선택적 추구행동에 대한 연구(정진식 2000)에서부터,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이제환 2005), 정보탐색행위의 모형에 대한 연구(김갑선 2005; 김성진 2006), 특정 이용자 집단의 학술 정보원 이용행태(박준식 외 2000; 윤정옥 2009)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연구들 또한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예로, 정보원 이용에 사회적 판단 분석을 도입한 Stefi-Mabry(2003)의 연구에서부터, 대학생들이 그룹 프로젝트를 위해 공동작업을 하는 동안 어떠한 정보행위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O'Farrell and Bates 2009), 정보원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Hertzum et al 2002) 또는 접근성과 이용에 대한 연구

(Yitzhaki and Hammershlag 2004)들까지 그 연구 내용과 방법에 있어 다양하다. 이는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해진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연구들을 발판으로 개념화 하기 어려운 이용자의 정보원의 이용과 정보추구행태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Y세대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정보원을 이용하며 해당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어떤 정보원을 주로 이용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선거시기와 같이 의사결정이 중요한 시기의 정보요구를 해소하는 정보원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이용과 동일하거나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지는 정보이용과 정보추구행태의 변화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3. 연구내용과 방법

3.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 전반에 걸쳐 고른 표본 추출을 위해 서울지역 소재 대학을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각각 3개 대학, 총 12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 2010년 6월 3일에서 6월 23일까지 총 20일의 기간 동안 각 대학 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배포된 설문지 360부 중 352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17부)와 선거 불가능 연령이라 이번 설문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연관성이 부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7부)들을 제외하고 총 328부를 통계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성별, 나이, 전공영역, 출신 지역 등을 묻는 인구 통계학적 질문과 정보원 이용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원 이용에 대한 문항들로는 의사결정이 실제 행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배경 정보 차원에서 투표 참여여부, 투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추구를 시도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후 특정시기와 일상생활의 정보원 이용에 대한 문항들을 넣었으며 정보요구 충족을 위한 시도와 재시도 시 사용하는 정보원에 대해 묻는 문항을 두어 정보원 이용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표 1 참고).

3.2 분석방법

유효하다고 판단된 328부의 설문 데이터는 SPSS 17.0(PASW 17.0)를 사용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는 인구통계학적 배경 정보에 대한 기술통계 및 기타 연관 통계분석을 거쳤으며 특정시기의 정보원 이용과 일상생활 시의 정보원 이용에 대한 관계는 각 시기 이용 정보원 데이터를 사용한 χ^2 교차분석을 실행하여 살펴보았다.

2) 현재 서울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을 형태나 규모 등 특정 요소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학생 표본 추출은 일반적인 기준이라 여겨지는 "지리적" 구분을 바탕으로 각 지역 대표 대학교 3개씩, 12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표 1〉 문항의 구성

| 설문 주제 | 세부 내용 | | 문항수 |
|-----------------|--------------------------|--------------------------------|-----|
| 배경정보 | 성별, 나이, 전공, 출신지역 | | 5 |
| | 투표 참여 여부 | | |
| | 투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추구의 여부 | | |
| 정보원이용 | 특정시기 정보원 이용 | 선거 시 정보추구를 위해 이용한 정보원 | 3 |
| | | 선거 시 정보추구에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정보원 | |
| | | 해당 정보원을 이용한 이유 | |
| | 일상생활 정보원 이용 | 일상생활 정보추구를 위해 이용하는 정보원 | 4 |
| | | 일상생활 정보추구에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 |
| | | 해당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 | |
| | | 일상 생활 정보활동의 만족도 | |
| 정보요구 충족과 정보원 이용 | 정보요구 충족을 위한 시도 여부 | 2 | |
| | 정보요구 충족을 위한 재시도 시 정보원 이용 | | |
| 문항수 | 14 | | |

4. 대학생 정보원 이용 실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설문참가자의 남녀구성은 남자가 150명, 45.7%이며 여자가 178명, 54.3%이다. 설문참가자의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66.2%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자연과학계열 28.7%, 예체능계열 4.6%, 기타 0.6%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설문 참여자 대부분은 20대이다. 전체 328명의 참가자 중 271명, 82.6%가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추후분석은 좀 더 세밀한 연령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19세, 20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의 네 집단으로 연령대를 나누어 이루어졌다. 출신 지역은 서울지역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경기(23.5%), 부산/경남(10.7%), 광주/전라(8.2%)의 비율을 차지했다. 67%에

이르는 220명이 선거에 관련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선거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42.4%, 139명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 선거 참여와 선거관련 정보추구 경험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행동으로 옮겨가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었으나 본 연구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심층적인 과정이나 변화, 영향요소 등을 독립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배경정보의 특성에 따라 가능한 여러 가지 차이들은 이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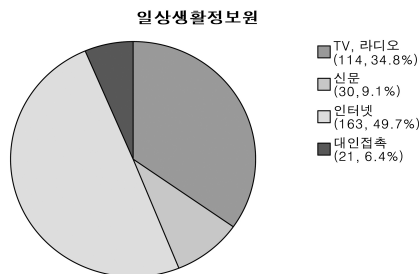
4.2 대학생의 정보원 이용실태

대학생 이용자가 일상생활 정보요구에 사용하는 정보원과 특정시기·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정보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TV/라디오, 신문, 인터넷, 핸드폰, 홍보물(인쇄형), 대인접촉, 기타의 7가지 정보원 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정보원을 표시하게끔 했으

〈표 2〉 표본의 특성(배경정보)

| 문항 | 구분 | 빈도(비율) | 총계(비율) |
|-----------|--------------|------------|------------|
| 성별 | 남자 | 150(45.7%) | 328명(100%) |
| | 여자 | 178(54.3%) | |
| 전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 217(66.2%) | 328명(100%) |
| | 자연과학계열 | 94(28.7%) | |
| | 예체능계열 | 15(4.6%) | |
| | 기타 | 2(0.6%) | |
| 연령 | 19세 - 20세 미만 | 54(16.5%) | 328명(100%) |
| | 20세 - 25세 미만 | 232(70.7%) | |
| | 25세 - 30세 미만 | 39(11.9%) | |
| | 30세 이상 | 3(0.9%) | |
| 출신지역 | 서울 | 132(40.2%) | 328명(100%) |
| | 인천/경기 | 77(23.5%) | |
| | 강원 | 9(2.7%) | |
| | 대전/충청 | 21(6.4%) | |
| | 광주/전라 | 27(8.2%) | |
| | 대구/경북 | 23(7.0%) | |
| | 부산/경남 | 35(10.7%) | |
| | 제주 | 4(1.2%) | |
| 선거참여 | 참여했다 | 139(42.4%) | 328명(100%) |
| | 참여하지 않았다 | 189(57.6%) | |
| 선거관련 정보추구 | 있다 | 220(67.1%) | 328명(100%) |
| | 없다 | 108(32.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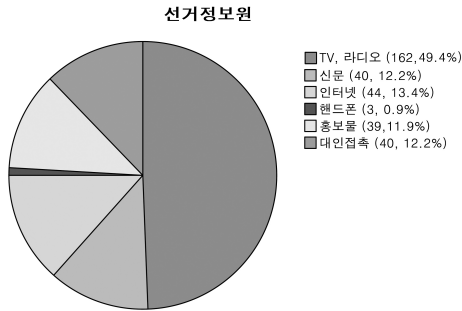
며 각각의 정보원에 뉴스, 토론, 기사, 웹사이트, 토론/채팅 등 각기 다른 세부 정보원 이용 항목을 두어 사용하는 정보원의 세부 양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정보원에 대한 응답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 일상생활 정보원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163명(49.7%)이 일상생활의 정보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114명(34.8%)의 응답자가 TV/라디오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수치상으로 볼 때 277명, 전체 백분율의 84.5%의 응답자가 TV/라디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일상생활의 정보요구를 해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정시기 정보원 이용은 일상생활의 정보원 이용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 〈그림 2〉는 선거와 같이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특정시기의 정보원 이용에 대한 참가자의 응답 데이터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2〉 선거 정보원

응답자의 반 정도가 선거와 같은 특정시기에 필요한 정보는 TV/라디오를 통해서 얻는다고 대답했다. 총 162명(49.4%)의 응답자가 TV/라디오 정보원을 이용해 특정시기의 정보요구를 해소하며 이 외에 다른 응답자의 경우 신문 40명(12.2%), 인터넷 44명(13.4%), 인쇄 홍보물 39명

(11.9%), 대인접촉 40명(12.2%)이라 응답함으로써 TV/라디오 이외의 다른 네 가지 정보원이 고르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상생활 이용 정보원에 대한 조사 결과, 인터넷 정보원 중에서도 뉴스와 같은 항목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 시 이용 정보원의 경우 TV/라디오 이외의 다른 네 가지 정보원이 고른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표 3〉,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의 정보추구에 있어서는 편의성 등의 이유로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정보의 권위나 정확성 등 또한 간과하지 않는 정보원을 선택하고 있음을 정보원 이용률이라는 수치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양질의 정보를 선호하

〈표 3〉 일상생활 정보원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TV/라디오: 뉴스 | 72 | 22.0 | 22.0 | 22.0 |
| TV/라디오: 토론(대답) | 31 | 9.5 | 9.5 | 31.4 |
| TV/라디오: 후보자 또는 기타 광고 | 3 | .9 | .9 | 32.3 |
| 신문: 논평, 사설 | 6 | 1.8 | 1.8 | 34.1 |
| 신문: 기사 | 22 | 6.7 | 6.7 | 40.9 |
| 신문: 후보자 또는 기타 광고 | 2 | .6 | .6 | 41.5 |
| 인터넷: 뉴스 | 140 | 42.7 | 42.7 | 84.1 |
| 인터넷: 공식기관 웹 사이트 | 3 | .9 | .9 | 85.1 |
| 인터넷: 기타 관련 웹 사이트 | 4 | 1.2 | 1.2 | 86.3 |
| 인터넷: 토론/채팅 | 1 | .3 | .3 | 86.6 |
| 인터넷: 인터넷 상의 타인 글 | 15 | 4.6 | 4.6 | 91.2 |
| 홍보물: 공식적 홍보물 - 선거공보물 등 | 2 | .6 | .6 | 91.8 |
| 홍보물: 사적 홍보물 - 후보팸플렛형식 등 | 3 | .9 | .9 | 92.7 |
| 대인접촉: 친구/선후배 | 7 | 2.1 | 2.1 | 94.8 |
| 대인접촉: 가족(부모/형제) | 11 | 3.4 | 3.4 | 98.2 |
| 대인접촉: 선생님/교수님 | 2 | .6 | .6 | 98.8 |
| 대인접촉: 기타 타인/유세 | 3 | .9 | .9 | 99.7 |
| 기타 | 1 | .3 | .3 | 100.0 |
| 합계 | 328 | 100.0 | 100.0 | |

〈표 4〉 선거시 정보원 이용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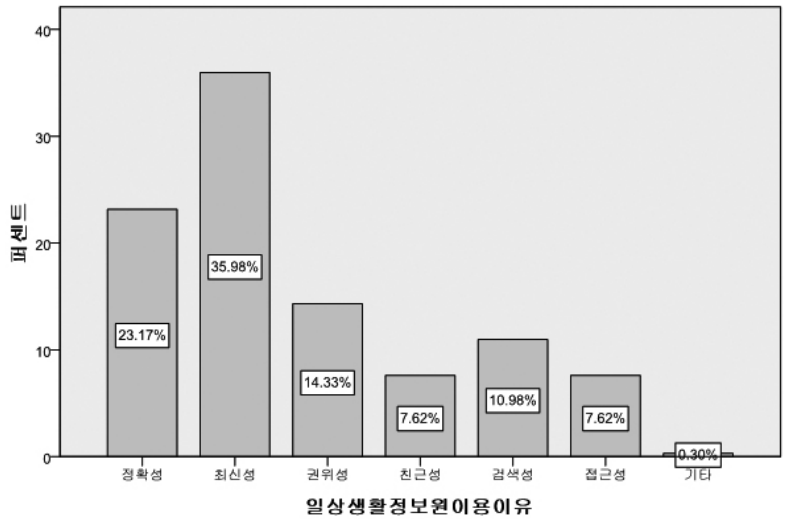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TV/라디오: 뉴스 | 86 | 26.2 | 26.2 | 26.2 |
| TV/라디오: 토론(대답) | 62 | 18.9 | 18.9 | 45.1 |
| TV/라디오: 후보자 또는 기타 광고 | 14 | 4.3 | 4.3 | 49.4 |
| 신문: 논평, 사설 | 11 | 3.4 | 3.4 | 52.7 |
| 신문: 기사 | 28 | 8.5 | 8.5 | 61.3 |
| 신문: 후보자 또는 기타 광고 | 1 | .3 | .3 | 61.6 |
| 인터넷: 뉴스 | 18 | 5.5 | 5.5 | 67.1 |
| 인터넷: 공식기관 웹 사이트 | 18 | 5.5 | 5.5 | 72.6 |
| 인터넷: 기타 관련 웹 사이트 | 4 | 1.2 | 1.2 | 73.8 |
| 인터넷: 인터넷 상의 타인 글 | 4 | 1.2 | 1.2 | 75.0 |
| 핸드폰: 전화홍보 | 3 | .9 | .9 | 75.9 |
| 홍보물: 공식적 홍보물 - 선거공보물 등 | 27 | 8.2 | 8.2 | 84.1 |
| 홍보물: 사적 홍보물 - 후보팸플렛형식등 | 12 | 3.7 | 3.7 | 87.8 |
| 대인접촉: 친구/선후배 | 9 | 2.7 | 2.7 | 90.5 |
| 대인접촉: 가족(부모/형제) | 5 | 1.5 | 1.5 | 92.1 |
| 대인접촉: 선생님/교수님 | 2 | .6 | .6 | 92.7 |
| 대인접촉: 기타 타인 /유세 | 23 | 7.0 | 7.0 | 99.7 |
| 기타 | 1 | .3 | .3 | 100.0 |
| 합계 | 328 | 100.0 | 100.0 | |

는 경향은 선거시와 같이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더욱 강해져 이용의 편리함 보다 해당 정보의 권위, 정확성을 더욱 더 중요시하는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다 판단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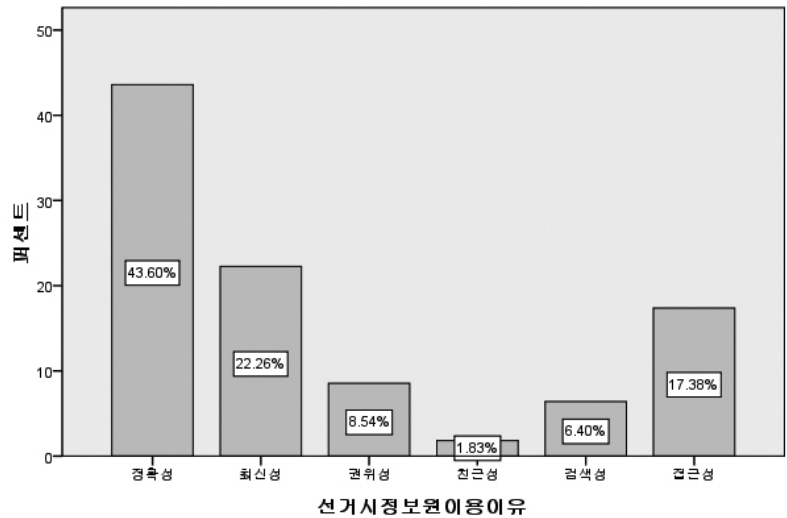
일상생활시와 특정시기의 정보원 이용에 대한 이유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정보원 이용의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평가 기준은 최신성이다. 총 118명, 36%의 응답자가 일상생활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로 최신성을 선택했다. 정보원의 정확성(76명, 23.3%)과 권위성(47명, 14.3%)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검색성(36명, 11%), 친근성(25명, 7.6%), 접근성(25명, 7.6%)이라는 다른 세 항목 또한 비슷한 비율로 일상생활시 해당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정보원 이용을 이해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우선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원이 최신성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것이고, 정보의 최신성 뿐 아니라 정확성과 권위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상위 세 가지 기준 이외의 다른 평가기준들 또한 일정정도 고르게 이용 이유로 꼽혔다는 것은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정보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최신성 뿐 아니라 정확성과 권위성도 추구하지만 실제로 친근성, 검색성, 접근성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추해보건데 일상생활 정보원 이용은 많은 경우 개인의 성향, 선호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두드러지게 단 하나의 요소만이 강조되지는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3〉 일상생활 정보원 이용 이유



〈그림 4〉 선거시 정보원 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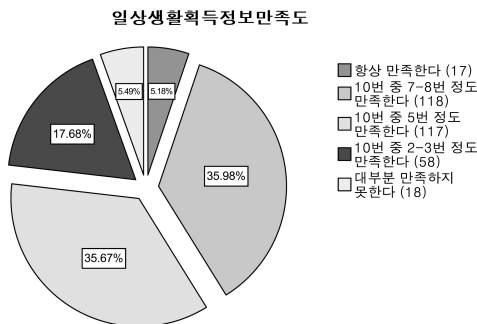
특정시기의 정보원 이용의 경우, 143명(43.6%)의 응답자가 정확성 때문에 해당 정보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최신성(73명, 22.3%), 접근성(57명, 17.4%), 권위성(28명, 8.5%)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결과로 볼 때 참가자의 반수

이상이 선거와 같이 의사결정이 필요로 하는 특정시기에는 정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 정보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4 참고).

정보원 이용 이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생활의 정보원 이용에 있어서나 특정시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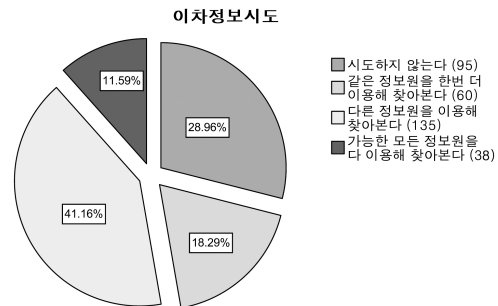
정보원 이용에 있어 접근성이나 친근성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소위 말하는 “Y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원 이용에 있어 정보원의 형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다. 즉, Y세대는 많은 다양한 종류·형태의 정보원을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정보원의 친근성, 접근성이라는 요소보다는 정보 자체의 정확성, 권위성 등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여겨진다.

일상생활의 정보추구 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총 252명(76.8%)이 10번의 정보추구시도에서 5번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5〉 일상생활 정보 획득에 있어서의 만족도

정보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2차적 정보추구를 시도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시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에 이르렀다(그림 6 참고). 이는 본 연구 참가자를 표본으로 볼 때 정보요구가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 2차, 3차적 정보추구행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6〉 2차 정보추구 시도

4.3 일상생활의 정보원 이용과 특정시기의 정보원 이용

이용자의 일상생활 이용 정보원에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고 대학생이라는 사회적 위치상 그 연령대가 20세에서 30세 사이로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연령대를 좀 더 세부적인 3개 연령대로 나누어 일상생활 이용 정보원에 대한 상관관계를 χ^2 검증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χ^2 통계값은 19.724, 유의확률은 0.003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세부 연령대에 따라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정보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신문 이용이 적고 인터넷의 이용률이 높다는 사실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대학생 이용자 집단의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니나, 대학생 이용자 집단 안에서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통계적 결과는 흥미로운 일이라 하겠다. 이는 향후 차세대 이용자 집단을 위한 정보서비스에 있어 인터넷 정보원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표 5〉 세부연령대에 기반한 일상 생활 정보원에 대한 χ^2 교차분석

〈세부연령대 * 일상생활정보원 교차표〉 단위: 명(%)

| | | 일상생활정보원 | | | | 전체 |
|-----------|------------|---------|-------|-------|-------|--------|
| | | TV, 라디오 | 신문 | 인터넷 | 대인접촉 | |
| 세부 연령대 | 19세-20세 미만 | 11 | 4 | 29 | 10 | 54 |
| | | 20.4% | 7.4% | 53.7% | 18.5% | 100.0% |
| | 20세-25세 미만 | 89 | 21 | 113 | 9 | 232 |
| | | 38.4% | 9.1% | 48.7% | 3.9% | 100.0% |
| | 25세 이상 | 14 | 5 | 21 | 2 | 42 |
| | | 33.3% | 11.9% | 50.0% | 4.8% | 100.0% |
| 전체 | | 114 | 30 | 163 | 21 | 328 |
| | | 34.8% | 9.1% | 49.7% | 6.4% | 100.0% |

$\chi^2 = 19.724(df=6, p=0.003)$

〈표 5〉는 세부연령대에 기반한 일상생활 정보원 이용에 대한 χ^2 교차분석 검증 결과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세부연령대에 따른 정보원 각각의 이용 빈도와 비율이 전체 이용자의 정보원 이용 빈도, 비율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각 시기 이용하는 정보원과 해당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볼 때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있어 어떠한 정보원을 사용하더라도 이용하는 정보원과 해당 정보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특정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 정보원 이용과 이용 이유를 바라봄에 있어서 Savolainen(1995)의 ELIS(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모델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ELIS 모델에 따르면 “이용자의 일상생활 정보추구는 사회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의 결합이고 이런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선택하거나 선택한 정보원을 여러 방식으로 이용하지만 궁극적으

로 정보원의 선호도나 이용 패턴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로 표현될 수 있다. 각 시기의 정보원 이용과 이용 이유가 서로 상관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하나의 통계 수치이나 이 수치를 토대로 ELIS모델의 이론에 기반한 해석이 가능하다 여겨진다. 즉, 일상생활의 정보추구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게 되므로 어떤 정보원을 왜 이용하느냐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보원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한 연구이다. 서울소재 12개 대학 360명을 표본으로,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328명의 표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일상생활의 정보원 이용이 특정시기의 정보원 이용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방선거라는 특

정시기의 정보추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정보원 이용의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 평가기준을 살펴보고 최신성, 정확성, 권위성, 검색성, 친근성, 접근성의 6가지 평가 기준을 사용해 일상생활 정보원 이용과 특정시기 정보원 이용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49.7%의 이용자가 일상생활 정보원으로 인터넷 정보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해당 정보원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최신성을 들었다. 정확성, 권위성, 친근성, 검색성, 접근성 등 나머지 기준들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여서 일상생활 정보추구의 경우 정보의 최신성이라는 두드러진 이유와 정확성과 권위성이라는 상위 세 가지 기준 이외의 다른 평가기준들 또한 고르게 이용이유로 거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상생활 정보원 이용은 많은 경우 개인의 성향, 선호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둘째, 특정시기의 경우 주로 TV/라디오와 같은 정보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응답자의 반 정도가 선거와 같은 특정시기에 필요한 정보는 TV/라디오를 통해서 얻는다고 대답했다. 이 외에 다른 응답자의 경우 신문, 인터넷, 인쇄 홍보물, 대인접촉 등에 고른 비율로 응답함으로써 TV/라디오 이외의 다른 네 가지 정보원이 고르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 시기 정보이용에 있어 대학생 이용자는 이용의 편리함 보다 해당 정보의 권위, 정확성 등 양질의 정보 획득을 더욱 더 중요시하는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다 판단되는 부분이다.

셋째, 세부 연령대에 따라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정보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신문 이용이 적고 인터넷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이는 향후 차세대 이용자 집단을 위한 정보서비스에 인터넷 정보원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 분석 결과는 대학생이라는 이용자 집단과 그들의 정보추구행태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리라 여기며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에 있어 서울소재 12개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Y세대라 부르는 사회 문화현상에 바탕을 두어 이용자 집단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둘째, 특정시기의 정보추구를 살펴보기 위해 지방선거라는 의사결정 필요시기를 이용해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특정시기(선거 이외의 다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추구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정보추구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즉, 정보추구행태변화의 내용이나 과정은 이 연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많은 후속연구들로 해답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외된 형태의 정보원, 대표적인 유형으로 모바일 정보원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모바일 정보의 사회라 아니할 수 없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진행하는 정보추구행태도 나날이 발전, 진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후 우리가 말하는 Z세대, N세대를 위

한 정보서비스를 조직하는데 있어서도 모바일 정보원에 대한 연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Y세대라 일컫는 신중의, 그러나 이미 대중적인 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정보원과 정보원 이용이유를 조사 분석한 연구이다. 통계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이라는 이용자 집단의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하는 바탕 자료로 이해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갑선. 2005. 정보추구행태 모형의 연구 경향. 『정보관리학회지』, 22(4): 235-254.
- [2] 김석영. 2002. 과학기술 분야 해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평가 연구. 『정보관리연구』, 33(1): 61-80.
- [3] 김선형, 유사라. 1997.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제4회 학술대회 논문집』, 199-202.
- [4] 김성진. 2006. 웹 이용자의 정보 탐색 행위 패턴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3(4): 197-214.
- [5] 김영기. 2010. 온라인 정보원의 유형별 신뢰지수 및 신뢰성 평가요인. 『정보관리학회지』, 27(1): 7-24.
- [6] 박준식. 2000. 대학교수들의 학술정보원 이용행태 분석: K대학의 사회과학교수집단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7(3): 21-43.
- [7] 윤정옥. 2009. 인문학자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5-28.
- [8] 이제환, 노지현. 2005.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 주요 한인단체와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45-75.
- [9] 이응봉, 류범중, 김우성, 김석동. 2002. 전자도서관 웹사이트 품질향상을 위한 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41-60.
- [10] 정진식. 2000. 이용자의 정보추구행동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3): 193-212.
- [11] 정혜정. 2007. 데이터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8(4): 119-128.
- [12] 최인숙. 2004.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종합목록 데이터 품질평가 및 관리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119-138.
- [13] 황혜경. 1998. 『정보자원으로서의 웹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14] Bauer, C., and Amo S., 2000. "Quantitative Evaluation of Web Site Content and Structure." *Library Computing*, 19(3/4): 134-146.
- [15] Basch, R. 1990. "Measuring the quality of the data: Report on the fourth annual SCOUG

- retreat.” *Database Searcher*, 6(8): 18-24.
- [16] Barry, C. 1994. “User-defined relevance criteria: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 149-259.
- [17] Berti-Equille, L. 2007. “Data quality awareness: A case study for cost optimal association rule min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s*, 11(2): 191-215.
- [18] Hemminger, B. 2007.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academic scientis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14): 2205-2225.
- [19] Hertzum, M. 2002. “The importance of trust in software engineers’ assessment and choice of information sources.” *Information and Organization*, 12(1): 1-18.
- [20] Nelson, R., Todd, P., Wixon, B. 2005. “Antecedents of information and system quality: An empirical examination within the context of data warehousing.”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1(4): 199-235.
- [21] O’Farrell, M., and Bates, J. 2009. “Student information behaviours during group projects.” *Aslib Proceedings: New Information Perspectives*, 61(3): 302-315.
- [22] Sadiq, S., X. Zhou, X., Orłowska, M. 2007. “Data Quality - The Key Success Factor for Data Driven Engineering.” *Network and Parallel Computing Workshops*, 18(21): 48-56.
- [23] Savolainen, R.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3): 259-294.
- [24] Smith, A. 2002. “Evaluation of Information Sources” [online]. [cited 2010. 6. 7].
 <http://www2.vuw.ac.nz/staff/alastair_smith/evaln/evaln.htm>.
- [25] Spink, A. 2000. “Toward a theoretical framework for information science.” *Informing Science*, 3(2): 73-75.
- [26] Stefi-Mabry, J. 2003. “A Social Judgment Analysis of Information Source Preference Profiles: An Exploratory Study to Empirically Represent Media Selection Patter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4(9): 879-904.
- [27] Yitzhaki, M., Hammershlag, G. 2004. “Accessibility and Use of Information Sources Among Computer Scientists and Software Engineers in Israel: Academy Versus Industr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5(9): 832-84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pseon Kim, 2005. “Review of Research Trend in Models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4): 235-254.
- [2] Sukyoung Kim, 2002. "A Evaluation Study on Foreign Science & Technology Online Database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3(1): 61-80.
- [3] Sukyoung Kim, Sarah Yoo, 1997. "Evaluative Study on the Information Quality of Science & Technology Database" *Proceedings of The 4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99-202.
- [4] Sung-Jin Kim, 2006. "Analyzing Patterns in Use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Web"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197-214.
- [5] Young-Kee Kim, 2010. "Confidence Indicators and Evaluation Factors of Credibil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Online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7-24.
- [6] Joon Shik Park, 2000. "The Analysis on the Academic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College Professors: A Social Scientist Group in the K-Uno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7(3): 21-43.
- [7] Cheong-Ok Yoon, 2009. "Research on the Usage of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Humanities Schola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5-28.
- [8] Jae-Whoan Lee, & Jee-Hyun Rho, 2005. "Information Activities of Korean Ethnic Community in Jap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4): 45-75.
- [9] Eung-bong Lee, & Bum-Jong Ryu, & Woo-Sung Kim, & Suk-Dong Kim, 2002. "A Study on Usability Evaluation for Improving Quality of University Digital Library Websit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1): 41-60.
- [10] Jin-Sik Chung, 2000. A Study on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Us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7(3): 193-212.
- [11] Hye-Jung Jung, 2007. "A Study of the Data Quality Evalu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8(4): 119-128.
- [12] In-Sook Choe, 2004. "Evaluation and Quality Control of Data in the Digital Library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3): 119-138.
- [13] Hye Kyung Hwang, 1998.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Web Sites as Information Resources*. Graduate thesis, Yonsei University.

〈부록 1〉

본 설문지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정보추구와 정보원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익명으로 수합, 처리되며 정보추구와 정보원 이용이라는 이 연구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2010년 6월 3일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정 미

jmlee@swu.ac.kr (02) 970-5547

1. 당신의 성별과 나이를 밝혀 주십시오. (남 / 여) (만 세)
2. 당신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 ① 인문/사회계열(어문, 인문, 법정, 상경, 사회 포함)
 - ② 자연과학계열(이학, 공학, 농학, 수산해양, 가정, 의학, 수의학, 약학, 간호학, 보건위생 포함)
 - ③ 예체능계열(미술, 음악, 체육, 무용 포함)
 - ④ 기타()
3. 당신의 출신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인천/경기 ③ 강원 ④ 대전/충청 ⑤ 광주/전라
 - ⑥ 대구/경북 ⑦ 부산/울산/경남 ⑧ 제주 ⑨ 기타()
4.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투표에 참가 하셨습니까?
 - ① 참가하지 않았다 ② 참가했다
5. 투표 참여 여부와 관련없이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6 - 13.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와 신뢰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아래 보기를 보고 가장 적절한 정보원을 골라 '보기'와 같이 기입해주시시오.

| | | | |
|----------|--|--------|---|
| ① TV/라디오 | a. 뉴스 b. 토론(대담) c. 후보자 또는 기타 광고 | ④ 핸드폰 | a. 전화홍보 b. 문자메시지홍보 |
| ② 신문 | a. 논평,사설 b. 기사 c. 후보자 또는 기타 광고 | ⑤ 홍보물 | a. 공식적 홍보물 - 선거 공보물 등 b. 사적 홍보물 - 팸플릿 형식 등 |
| ③ 인터넷 | a. 뉴스 b. 공식 기관 웹사이트 c. 기타 관련 웹사이트 d. 토론/채팅 e. 인터넷 상에 게시된 타인의 글 | ⑥ 대인접촉 | a. 가족(부모/형제) b. 선생님/교수님 c. 기타 타인/유세 |
| | | ⑦ 기타 | |

※ 6 - 8번은 지방 선거 당시 정보추구와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6. 지방선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이용한 정보원은 무엇입니까? _____[보기] ① - a]

7. 지방선거 당시 보기의 정보원들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정보원은 무엇입니까?
_____ [보기] ① - a]

8. 지방선거를 위한 정보 획득에 있어 해당 정보원(6번 질문)을 이용했던 이유를 한 가지 고른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정확성 ② 최신성 ③ 권위성 ④ 친근성 ⑤ 검색성 ⑥ 접근성 ⑦기타()

※ 9 - 14번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정보추구와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9. 일상생활에 있어 정보가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은 무엇입니까? _____[보기] ① - a]

10. 일상생활의 정보추구에 있어 보기의 정보원들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원은 무엇입니까? _____[보기] ① - a]

11. 일상생활의 정보 획득에 있어 해당 정보원(9번 질문)을 이용했던 이유를 한 가지 고른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정확성 ② 최신성 ③ 권위성 ④ 친근성 ⑤ 검색성 ⑥ 접근성 ⑦기타()
12. 당신의 일상생활의 정보활동에서 획득한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항상 만족한다. ② 10번 중 7-8번 정도는 만족한다.
③ 10번 중 5번 정도 만족한다. ④ 10번 중 2-3번 정도 만족한다.
⑤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다.
13. 일상생활의 정보획득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시 찾아보십니까?
① 시도 하지 않는다. ② 시도한다.(14번 문항으로)
14. 정보요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찾고자 다른 시도를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하십니까?
① 시도 하지 않는다. ② 같은 정보원을 한번 더 이용해 찾아본다.
③ 다른 정보원을 이용해 찾아본다. ④ 가능한 모든 정보원을 다 이용해 찾아본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